

“문화·예술도시 복구, 주민들과 함께 만든다”

광주 복구 ‘문화·예술 거점기반 마련 사업’ 주민들 만족 평가 문화센터·도서관 등 확대...최약계층 등 민생회복에도 집중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광주의 문화를 선도 하는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자긍심을 이끌어 내는 선도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복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거점기반 마련 사업’ <7월4일 광주일보 7면>이 본게도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은 복구의 문화적 생활육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인 광주 복구정장은 “민선 7기를 1년 남기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심신이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 더불어 잘 사는 행복환복구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구정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주민중심 혁신 행정’을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재정난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복구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복지 취약계층, 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민생 회복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구정장은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시행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활SOC 확

충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내 문화센터는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점이 될 수 있지만 복구에는 한곳도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복구문화센터·신용생활문화센터·우산생활문화센터 등 3곳을 새롭게 개관하고 운암생활문화센터도 준비중이다. 또 지역내 4곳이었던 도서관도 양산동·중흥동·신용동에 한곳씩을 늘려 총 7곳으로 확대했다.

지역민들의 체육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구종합체육관(신용동), 반다비체육센터(중앙동), 우산그린한공원체육센터(우산동)를 추가로 건립했고 운암동체육센터도 조만간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복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 복지비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이 고민이었다.

이에 중앙부처나 광주시 주관의 각종 평가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한 인프라 확충의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다.

열악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자해 지역내 구축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인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눈을 돌려 지역현

안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문 구정장의 성과로 꼽힌다.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문 구정장은 늘어난 인프라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소프트 웨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구 중외공원 모여있는 주요문화예술 시설을 연계해 중외공원을 광주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재)광주비엔날레와 문화예술벨트 내 프로그램 발굴·홍보 지원, 지역 주민 주최 공연·전시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복구는 열리는 광주를 넘어 세계적 문화 축제인 비엔날레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인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금·토·공휴일 야간에 미디어 영상을 상영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7기 남은 1년 코로나19 위기를 혁신·상생·희망의 기회로 삼겠다는 게 문구정장의 구상이다.

복구민 누구나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통합 돌봄 특화마을을 조성 ▲드론 활용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공립박물관 구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이 그것이다.



문인 복구정장이 주민들과 복구 문화센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복구 제공>

또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연계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기후변화위기 대응 종합대책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도시로 뻗어나갈 구상도 잊지 않고 있다.

문인 복구정장은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복구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문화와 따뜻한 복지를 누리는 자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함께 행복과 복구의 발전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답을 찾는 혁신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고?

소비자 65% 몰라...시중유통 대다수 제품 재활용 불가능

소비자의 90% 이상이 매일 청소나 위생 목적으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물티슈 원재료가 플라스틱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0~15일 20대 이상 소비자 636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1~2장을 쓴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하루 기준 3~5장(17.1%), 5~10장(10.4%), 10장 이상(4.3%) 순이었다. 물티슈를 거의 안 쓴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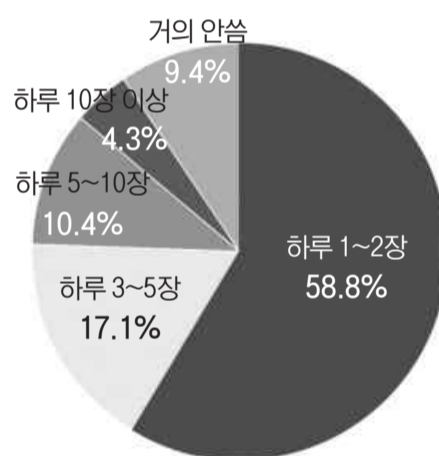
물티슈 용도로는 식탁이나 탁자 등을 닦는 행주 대용(39.8%), 바닥 등을 닦는 걸레 대용(36.0%), 개인위생용(24.2%) 순이었다.

이처럼 물티슈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물티슈 원재료를 플라스틱류라고 제대로 지목한 소비자는 34.9%에 그쳤다.

43.4%는 펄프(종이), 21.7%는 섬유라고 답해 65.1%는 물티슈의 원재료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 물티슈 제품은 플라

■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



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거나 폴리에스테르를 함유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리포트’ 6월호에 이같은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물티슈를 쉽게 쓰고 버리면 그만큼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직접 수확한 농산물, 이웃과 나눠요”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이웃에 열무김치전달

광주시 서구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영숙)가 최근 주민사랑협의체가 운영하는 ‘어쩌다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수확한 열무로 김치를 담가 관내 돌봄이웃 50세대에 전달했다.

<사진>
‘어쩌다 도시농부’ 사업은 농성1동의 마을공동체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서로 나누자는 취지에서 10여년째 이어 오고 있다. 회원 40여명은 지난 4월부터 재배한 열무 80kg를 수확, 김치를 담가 지역내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웃에 전달했다.

조영숙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이 씨를 부리고 수확, 김장하기까지 모든 과

정을 직접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의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콜링지원사업, 어른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긴급지원 119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 겨울에는 마을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가 돌봄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